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MAIL: 42 BROAD AV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655-1781, 917-400-9915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발행일: 1994년 3월
발행인: 조 광 용
편집인: 송 국 범

SOGANG PRIDE

신임 총장 선출과 남양주 제2캠퍼스 사업 협약 해지

유기풍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남양주 제2캠퍼스를 둘러싸고 이사회와 갈등을 겪다가 사퇴함에 따라 서강대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예수회 신부인 모교 종교학 박종구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박종구 신임 총장은 1979년 서울대에서 전자공학 학사학위를 받은 이후 프랑스 예수회 신학철학대 신학 학사 및 석사와 이탈리아 그레고리안대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 모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총장 임기는 금년 2월 1일 시작되었으며 취임식은 3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서강대 이나시오 성당에서 박문수 이사장(뒷편)과 신임 박종구 총장

한편 남양주시는 금년 2월 3일 모교가 남양주 제2 캠퍼스 건립 협약 미이행(교육부 대학위치 일부이전(신촌 캠퍼스 → 남양주시) 신청 지연)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로써 남양주 제2캠퍼스와 관련한 학내 분쟁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달리기 및 걷기에 열광하는 세대



George Washington Bridge, Fort Lee, NJ

백인들은 달리기 및 걷기를 참 좋아한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침에 호텔 주변을 지나다 보면 여행 중인 또는 출장 중인 백인들이 열심히 달리거나 걷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해외에 나와서도 열심히 달릴까?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일때,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동아리 지도교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한 3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가 운동을 잘 하는 것, 둘째가 공부를 잘 하는 것, 셋째가 돈이 많은 것 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의아했습니다. 한국의 입시과 정에는 운동을 중요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체육시간은 참 불필요한 시간낭비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미였던 달리기와 걷기에 2030 밀레니얼 세대가 합류하면서 이 인구는 42000만 명(미국 총인구 3억 2000여 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2000만 명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많이 변해 인구의 10% 이상인 600여 만 명이 달리기와 걷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달리기와 걷기는 운동을 넘어 하나의 생활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달리기 대회 참가자의 학력과 직업을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이 약 70%이고 전문직 종사자가 약 30%였다고 합니다.

건강과 활력은 인간 행동의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달리거나 걷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런 효과는 수십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 달린 거리나 걷는 거리와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부분에 새로 생성된 건강한 신경세포의 수는 정비례 한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사색을 하며 달리거나 걸을 수도 있고 옆의 친구와 대화를 하며 걷기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좋은 운동이자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플워치 등 측정 및 기록 기술이 발달하여 자신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분석적으로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안병설(65 물리) 최성숙(66 영문) 동문 부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부근 공원에서 걷기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하루 만보이상 걷기를 시작하면서 신진대사에 아주 좋은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선물로 준 애플워치를 차고 측정을 하고 분석적으로 운동을 하니 그 효과 또한 배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포트리나 팰리세이즈 파크 인근 동문들이 계시면 함께 걸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인근 동문들이 동문회로 연락주시면 걷기 모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싱을 시작으로 순회 소모임 진행



중국요리 삼원각, Flushing, NY

그동안 서강대 대 뉴욕 동문회는 뉴저지를 주 모임장소로 하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계 교포의 지리적 분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 동문들도 팰리세이즈 파크 인근 뉴저지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던 블러바드 인근에 거주하시는 동문들과 맨하탄에 거주하시는 동문들도 친교의 모임을 갖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동문회에서는 플러싱을 시작으로 순회 소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플러싱 중국요리집 삼원각에서 지난 4월 21일 진행된 NY 및 NYC 지역 저녁모임에 총 11명의 인근 동문들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추억과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조운영 동문(96 수학)은 오랜만에 동문회에 참석하여 무척 재미있고 훈훈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피력하였고 특히 박주성 동문(66 무역), 이종구 동문(69 화학), 배화순 동문(71 영문), 이선희동문(76 독문), 이종훈 동문(80 경영)등의 인생사를 나누는 시간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참석하신 동문들은 자신의 삶과 다른 동문들의 삶을 비교 반추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침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문회에서 마련해 준 만찬과 주류는 이번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맨하탄에서 7월 중에 있을 계획이며, 작년 연말 뉴욕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노채영(15 독문)양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맨하탄 인근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NY/NYC 지역 조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노력해 주신 문이준 동문(82 경제, 연락처 646-770-7855)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행사 일정

1) 봄 야유회 및 체육대회

- 일 시: 5월 6일 토요일 AM 11:00 ~ PM 4:30

- 장 소: George Washington Bridge 아래 Ross Dock Picnic Area, Fort Lee NJ

- 내 용: 참가 회비는 없으며 가족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갈비와 삼겹살, 해산물 바베큐를 맛있게 드시고 재미있는 운동경기를 즐기시면 됩니다.

* 오실때, 작년 봄야유회때 구매하신 서강대 Logo T-Shirts를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야유회 당일 구매(1개- \$20, 2개 - \$30)하실 수 있으니 편안히 오시기 바랍니다.

2) 봄 골프대회

- 일 시: 6월 3일 토요일 AM 11:30 ~ PM 5:30

3) 뉴욕장학생 연수

- 기간: 7월 초 ~ 8월 중순
- 장소: Columbia University, NY

동문 동정

지난 분기에 총 4명의 동문이 신규로 뉴욕동문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김경현(80 경제) 동문은 현재 Top Realty에서 Agent로 활동 중이고, 김상균(86 경영) 동문은 BroadTicket.com 대표 및 Top Realty Agent로 활동 중입니다. 또 윤임수(84 경영) 동문은 GVG Tech Corp에 재직중이고 장석민(86 경영) 동문은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장 겸 한국센터 사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새로운 뉴욕 동문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이준 동문(82 경제)의 장녀 Deborah Moon양이 캘리포니아 라구나 힐에서 지난 3월 18일 토요일 낮에 친지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강뉴욕동문회는 축의금을 전하며 새로운 의사부부 가정에 축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Deborah Moon's Wedding, CA

동문회비 및 후원금 납부명단(2017년도)

2017년 동문회비

조수진(60 영문) \$60
 정단리(61 영문) \$60
 윤규방(62 철학) \$60
 김영진(62 사학) \$60
 이완실(63 생명) \$60
 송진(64 경제) \$60
 송기철(64 경제) \$60
 김광운(64 물리) \$60
 안병설(65 물리) \$120
 임필재(67 생명) \$60
 이종구(69 화학) \$60
 황인신(75 무역) \$60
 정재경(76 사학) \$60
 조광용(78 경영) \$60
 문이준(82 경제) \$60
 이인경(86 영문) \$60
 김영록(87 전자) \$60

합 계: \$10,80

2017년 이사회비

조수진(60 영문) \$200
 이동호(64 영문) \$200
 송진(64 경제) \$200
 안병설(65 물리) \$400
 임필재(67 생명) \$200
 최도광(72 무역) \$200
 원유봉(73 전자) \$200
 윤재진(73 신방) \$200
 전태원(75 외교) \$200
 정재경(76 사학) \$200

합 계: \$2,200

2017년 특별후원

김광운(64 물리) \$140
 황인신(75 무역) \$140
 조광용(78 경영) \$200

합 계: \$480

2017년 장학금후원

김영진(62 사학) \$140
 이완실(63 생명) \$100
 이종구(69 화학) \$500
 최도광(72 무역) \$100
 윤재진(73 신방) \$500
 이인경(86 영문) \$500

합 계: \$1,840

동문회비 및 후원금

동문회비와 이사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장학금 적립,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이고 기타 후원금은 장학금후원(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특별 동문회 후원 비용으로 쓰입니다. 동문회비는 연간 \$60입니다. \$60 중 \$40는 동문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20는 장학금으로 적립합니다. 이사회비는 연간 \$200입니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7년에도 더 많은 동문이 회비납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사항

서강대 대 뉴욕동문회 소식지인 Sogang Pride는 분기마다 출간되며, 매년 첫 번째 소식지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배부합니다. 이메일 등 연락처 업데이트가 필요한 동문들은 동문회로 연락 바랍니다. Sogang Pride의 격조를 높여줄 동문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사는 서강 동문을 찾고 있습니다. 동문 사업을 웹사이트에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 뉴욕 웹사이트(<http://www.sogangnewyork.com>)에서 동문사업을 광고해 드립니다. 광고비는 연간 \$120입니다.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은 1984년부터 뉴욕지구 서강인과 함께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사장 : 최 도 광 (72 무역)
회 장 : 조 광 용 (78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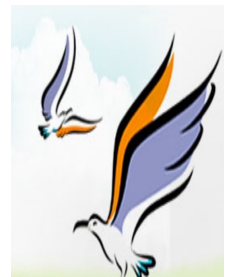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AGNY) 연락처

Mail: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655-1781, 917-400-9915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Website: <http://www.sogangnewyork.com>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서

\$60의 동문회비 또는 \$200의 이사회비와 여러분의 소정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 (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내용을 기재하시어 동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이름

영어이름

입학연도

전 공

납부금액

동문회비: \$ _____

이사회비: \$ _____

장학금후원: \$ _____

특별후원: \$ _____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회사 주소
